

보성 유포항 '국가어항' 도약 발판 마련

내년 정부예산 기본설계비 9억 반영…신규 지정 탄력

김철우 군수 "향후 100년 준비…해양전략 핵심 동력"

보성군 유포항이 국가 어항으로 도약할 첫 단계를 끌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유포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원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번 예산 반영은 군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 건의 과정의 결실

로, 유포항의 발전 잠재력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한 의미가 있다.

현재 지방어항인 유포항은 최근 방파제 조성, 회전수선물 위판장 확장, 해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거점화가 해양관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또 어업활동 기반이 강화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예산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 지정·고시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1·2단계를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유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조성(2만 2845㎡) 및 핵심 어업 인프라(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확충, 관광·레저·휴게시설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관광·수산·항만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국가어항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유포항은 해양 교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며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h66@gwangnam.co.kr



고흥, 미래 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식 196억 투입…평가인증·비행실증 원스톱 시설 구축

고흥군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삽을 뗐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 전남도 우주신산업과장, 공동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고흥이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을 축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도심항공교통(UAM) 등 항공기용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분사시스템 등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친환경 항공기용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96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흥군에는 평가인증과 비행 실증까지 가능한 원스톱 항공인프라 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평가센터가 내년에 완공되고 관련 장비 등이 2028년까지 완비되면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플랫폼(eVTOL)을 사용하는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핵심 부품들은 고흥에서 성능 시험평가를 받게 되어 지역 항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우수 항공기업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은 고흥군이 전기동력 항공기 평가인증 산업 전반에서 국내 주도권을 선점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인구유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항공특화농공단지는 현재 연약지반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13개 기업과 입주·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평가센터가 농공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면 전기추진제 인증시험 수요 기업 등 관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곡성,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참여자 15일까지 모집

“경제적 자립·사회적 고립감 해소”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공익 활동,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지원 등 4개 유형, 30개 사업단에서 총 158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은 공익 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가능), 공동체 사업단과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이다. 단기

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직장가입자, 장기 요양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타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고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군새마을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지난 해보다 177명이 증가한 규모로 문화유산 지킴이, 운동네 초등돌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지역사회 방역 활동 등 4개 신규 사업이 신설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 인구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유관기관협의체 확대 운영

올해부터 항만 위험물 등 안전관리 강화…소방서 참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근 유관기관으로 소방서를 포함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시청, 광양세관, 광양민관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광양소방서가 참여해 항만배후단지 관리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현안사항 논의 등도하게 됐다.

이번에 개최된 협의회는 항만 내 환경법규 위반사례 증가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관

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개최됐으며, 항만배후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유관 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황학범 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항만배후단지는 기업단지와 물류기능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유관기관협의체 확대 운영이 포함된 복합거점인 만큼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의체 확대 운영을 계기로 환경·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기업이安心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항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나주, 키르기스스탄과 에너지 협력
중앙아시아 사업 공동진출 기반 마련

나주시가 중앙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과 전남 에너지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와 에너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실질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분야 전방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Korea-Central Asia Energy Week 2025' 행사 기간 중 경제상업부와 에너지신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스마트에너지 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 ‘한국-키르기스스탄 기업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 ‘스타트업 육성과 공동 포럼 및 워크숍 추진’ 등 실제 사업화 중심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사업 기획과 운영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주관한다.

나주시는 사업 참여 기업과의 연계, 현지 정책 분석, 정부-기관 간 실무 논의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확대해 왔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수력자원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키르기스스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전남도와 나주, 키르기스스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원-원 협력’의 출발점이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기업 수출, 실질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조한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응천·여서 공영주차장 조성

내년 7월까지 순차 준공 목표

여수시는 도심 상가·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천동 모전마을과 여서동 레터리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응천동 모전마을을 공영주차장은 상가가 밀집한 응천동 1728-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82㎡, 타워식 2층(3면) 62면 규모로 조성된다.

또 여서동 레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은 주거밀집 지역인 여서동 824-2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1959㎡ 부지에 55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여수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달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7월까지 순차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두 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응천 모전마을 상가 주변과 여서동 레터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주요 생활권에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도심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공영주차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동 일원에는 사업비 21억5000만원으로 28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지난달 19일 조성했으며, 돌산 군내리 일원에도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한 28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오는 13일 준공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